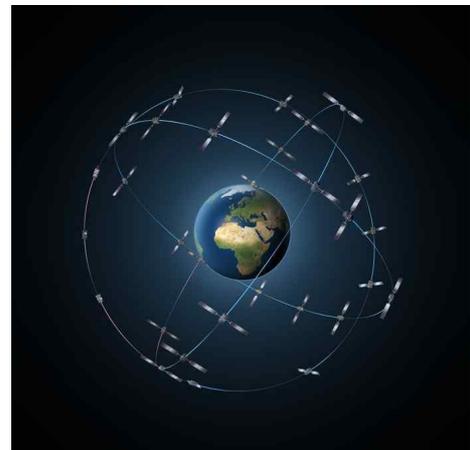


## 갈릴레오(Galileo) 서비스 개시

작성 :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(선임연구원)

유럽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(Galileo)가 2016년 12월 15일 공공기관,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. 갈릴레오는 현재 18기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는 추가로 12기의 위성을 발사하여 2020년까지 총 30기로 구성되는 갈릴레오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. 따라서 당분간 갈릴레오는 미국의 GPS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갈릴레오의 위치 측정이 GPS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.



스페인의 전자회사인 BQ는 이미 갈릴레오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으며 다른 제조사들도 갈릴레오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 EU의 유럽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: EC)가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지만, 갈릴레오의 시스템 개발과 운용을 위한 기술 지원은 유럽우주기구(European Space Agency)가 담당한다. 그리고 갈릴레오의 서비스 제공 업무는 유럽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기구(European GNSS Agency: GSA)가 수행한다.

갈릴레오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.

### 1. 수색구조서비스

해양 및 산악 지역에서 실종자를 탐지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. 갈릴레오의 수색구조 서비스(Search and Rescue Service: SAR)의 경우, 실종자가 갈릴레오 비콘을 통해 조난 호출을 하면 불과 10분만에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.

## 2. 민간인 대상 위성항법 서비스

갈릴레오 오픈 서비스(Galileo Open Service)는 스마트폰 및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료 대중시장 서비스를 제공한다. 2018년 경에는 갈릴레오를 활용한 네비게이션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장착될 것이다.

## 3. 향상된 동기 시간

갈릴레오는 고정밀 시간을 통해 은행 및 금융거래, 통신,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분배 네트워크에 보다 연속성 있는 동기 시간을 제공한다.

## 4. 공공기관 지원

갈릴레오는 민간 보호, 인도적 지원, 세관, 경찰 등의 분야에서 공공 기관을 지원한다. 특히, 갈릴레오는 테러리스트 공격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